

여수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조기 종료...진료공백 우려

6074명 소아 환자 이용 큰 호응

병원 내부 사정으로 조기 중단

여주시 “진료 공백 최소화 최선”

여수중앙병원이 운영 중인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야간·심야 및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 소아 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돼왔으며 응급실이 아닌

외래 기반의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총 6074명의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며 ▲진료비 부담 경감 ▲진료 접근성 향상 ▲소아 심야 의료 공백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운영 종료로 단기적으로는 야간 소아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중심의 24시간 소아 진료 안내를 강화하고 관내 소아과 운영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체 진료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는 향후 심야·휴일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야간 소아 진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역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였다”며 “이번 조기 종료는 병원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된 상황인 만큼 2026년에는 보다 안정된 체계로 재정비해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운영 종료 사실을 시민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등에 안내문을 게시해 진료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207억원 투입 내년 노인일자리 5206명 모집

5일까지 읍·면사무소 등 접수

고흥군이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총 207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5206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와 관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대현노인회, 고흥군지회,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노인복지관)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4520명)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야외 공공시설관리, 우리마을 자원재활용단, 해수욕장 환경관리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다양한 영역

으로 구성된다.

노인역량활용사업(436명)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월 76만1000원(주휴수당 포함)의 급여가 지급되며, 취약계층 돌봄지원, 일자리 현장 운영 지원, 노인시설 운영지원 등 활동성 있는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가 운영된다.

공동체사업단(250명)은 사업단별로 근무시간과 급여가 상이하며(월 25만원+수익금), 제조·판매형 사업,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

급 판정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중복 참여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은 소득수준, 세대구성, 활동 역량 등을 고려해 수행기관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자체 선발하며, 12월 말까지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활동은 2026년 1월부터 시작 예정이다.

고흥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준비했다”며 “조건에 맞는 모든 어르신이 대기 없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고흥군, ‘2025 올해의 SNS 대상’ 2관왕

트위터·인스타그램 최우수상

고흥군이 지난달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대상’ 시상식에서 트위터 부문 대상과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제11회 2025 올해의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민간과 공공 분야의 SNS 채널을 대상으로 운영 수준과 소통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이 상은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을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고흥군은 채널별 특성에 맞춰 대표 캐릭터 ‘홍이’를 활용한 긍정 소식과 정보를 시리즈로 제공

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7종의 SNS 채널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콘텐츠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종합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 행정의 결실이다”라며 “유형을 따르기보다 고흥군만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정보와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군민 소통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 김장 김치 나누기

1만800kg 취약계층 전달

구례군이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용방면 지용관에서 ‘온기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5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김장 김치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구례군 여성단체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한마음으로 김장에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정성으로 약 1만800kg 김치를 담가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547세대, 경로당 303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추운 날씨와 물가 상승으로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이웃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김



구례군이 최근 온기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시행했다.

장 김치에 담겨, 우리 이웃들의 겨울을 든든하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과수화상병 예방 철저한 과원 관리 당부

광양시가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겨울철 과원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지역 과수 농가에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사과·배나무 등에 기주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병원균은 겨울철 저온기에는 활동을 멈추지만, 가지와 줄기에 균양(암갈색 병반)을 형성한 채 월동해 일부는 생존하므로, 철저한 균양 제거가 병원균 밀도를 낮추고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동계 정지·전정 시 사용하는 가위·톱 등 작업도구와 장갑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큰 만큼, 작업 전·후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절단면에는 방제약제를 도포해 추가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과원 주변에 자라는 산사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비파나무, 꽃사과 등 기주식물도 주기적으로 살펴 균양 증상이 있는 가지·줄기를 즉시 제거하고, 잘라낸 가지는 과원에 방치하지 말고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강인근 광양시 기술보급과 미래농업팀장은 “과수화상병은 가지마름증상과 혼동되기 쉽지만, 마른 가지가 지팡이처럼 구부러지고 잎이 붙은 채 말라 있으며, 줄기에는 뚜렷한 암갈색 균양병반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 관리를 통해 관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섬애(愛)선율 음악 공모전

14일까지 접수...AI 활용 허용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오는 14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섬애(愛)선율 음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허용하며 음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섬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공모 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직위는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에는 최우수상 1곡(50만원), 우수상 3곡(각 30만원), 장려상 6곡(각 1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조직위와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과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노인역량활용 지원금 1억7000만원 확보

보성군이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에서 우수한 고용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1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 고용·관리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군이 2024년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1억20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보성군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ESG(환경·안전·복지서비스 등) 분야에 노인 인력을 채용해 ▲5개월 이상 근로 ▲월 평균 76만 2000원 이상의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기업에 1인당 연 최대 170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제공한다.

군은 2026년에도 사업 규모를 확대해 160명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억6000만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보성600’사업의 하나로 보성군 등록경로당 447개소에 지원할 ‘어르신 보드게임 꾸러미’에 투입된다. 해당 꾸러미는 인지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에 효과가 높은 놀이 세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복 기자 kyb@kwangju.co.kr



장천동 터미널 주변 장천2길의 전신주 철거 후 모습.

순천 장천동 터미널 주변 거미줄 전선 사라졌다

2022년 착공 지중화 이달 마무리

순천시가 장천동 터미널 주변도로 전선주 지중화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전신주 철거 작업을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기간은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버스터미널 주변 장천2길, 이수로, 팔마로 일대 1.2km 거리로 전신주 지중화와 도로·보도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75억4000만원(순천시 42억5000만원, 한전 23억5000만원, 통신사 9억4000만원)이다.

시는 2020년 9월 한전·KT·통신사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에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로매설, 도로포장, 선로 작업을 완료했으며 11월 현재는 지상케이블과 전신주 철거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신주 철거일정은 장천2길(터미널사거리-OK마트), 이수로(순고오거리-순천교) 구간이 11월 말까지 마무리되며, 팔마로(순고오거리-아랫장사거리) 구간은 12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통신선·유선방송 케이블 등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공중선과 전신주가 사라져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태풍·화재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 등 도시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도시미관과 걷기 편한 순천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음식연구회 음식 발표회

시민 200여명 참여 대성황

순천시가 지난달 27일 순천시립신대도서관 열린강당에서 ‘제1회 순천음식연구회 음식 발표회’를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순천음식연구회가 주최한 첫 공식 행사로, 지난 1년간 회원들이 함께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회원들은 지역 식재료와 순천 고유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담아내기 위해 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대경이 고추장 ▲고들빼기 김치 ▲닭구이 ▲꽃감단자 ▲매실숙 간편증편 등 40여 종의 특화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1997년에 창립된 순천음식연구회는 지역의 전통·향토음식을 발굴·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현재 49명의 회원들이 매월 1회 과정교육을 통해 지역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음식연구회가 지역식문화 전통을 지키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